

인 사 말

한국불교의 발전과 일본불교와의 유대와 교류에 진력하시는 한일불교 문화 교류협의회 임원 및 이사님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한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청안함속에서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77년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가 발족한 이래로 오랜동안 국민 정서와 정치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우호 관계가 끊긴 적이 없다는 것은 양국 불교의 깊은 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기에 계신 이사님과 전현직 임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는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특히 새로운 이사장을 모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회원들께서 새롭게 모시게 되는 이사장의 원력과 헌신을 공경하면서 그간의 성취에 더욱 더하여 심도 깊고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형보다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함께 해나간다면, 일본불교와의 관계는 물론 세계불교속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알고 계시듯이 올해는 교류대회가 일본에서 개최합니다. 언제나처럼 소중한 마음으로 함께하셔서 튼튼한 교류가 빛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총회가 이러한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두가 상호 존중속에서 고견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이사장의 임기를 다하기는 하지만 태고종 총무원장스님께

서 안타깝게도 종단의 내부적인 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임원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담아서 안부와 격려의 마음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여러 종단이 모이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회원 종단으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성심을 다해주신 여러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및 여러 교류의 성공적인 회향에 모두 함께 화합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0년 2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